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통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북도는 19일 도청 회의실에서 송하진 도지사 주재로 2022년 국가예산 확보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전북도청 제공)

### 국정감사 끝나면 '국회 예산심의' ... 전북도, 전략회의 열어

## 국가예산 최대 확보 사활

#### 미온적·부정적 사업 중심 쟁점 해소 세부전략 논의

#### 송 지사 "사회 대전환 대응 전북 대도약 동력 확보 위해 예산 확보 전력 다해달라"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10월 마지막 주부터 본격 시작되는 국회 예산심의를 앞두고 전북도가 내년도 국가예산 최대 확보를 위한 전략적 대응에 나선다.

도는 19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송하진 도지사 주재로 '2022년 국가예산 확보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소관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각 실·국별 중점사업에 대한 부처 및 기재부 반응과 핵심 쟁점 해소방안, 국회 상임위·예결위 단계 최대 예산보장을 위한 전략적 대응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지난 9월 3일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전북도는 새만금 SOC 사업비 대폭 증액과 자율주행·재생

에너지·수소 산업 등 미래 신산업지도 동력사업 등 의미 있는 신규사업을 다수 반영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또한, 도는 국회 단계 효과적인 예산심의 대응을 위해 이날 회의에서 각 실·국별로 소관 부처 및 기재부 반응이 미온적이거나, 부정적인 사업 중심으로 쟁점 해소를 위한 세부 전략들을 논의했다.

아울러, 도는 지휘부의 국회와 기재부 활동을 비롯해 각 실·국별 방문 활동, 유선 접촉, 이메일 자료제공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도와 시·군, 정치권이 삼각 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 입체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국회 상임위·예결위 단계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전략을 가지고, 전망위적인 예산 확보전에 나서기로 했다.

당장, 20일부터 도와 시·군 합동으로 국회에 국가예산 배이스캠프를 차리고, 주요사업 삭감 방지와 정부안과 소·미반영사업 예산 증액을 위해 현장에서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22일에는 지역 국회의원

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연달아 갖고 정치권과 공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송하진 도지사를 필두로 지휘부는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는 12월 초까지 릴레이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25일과 28일에는 조병업 행정부지사가 11월 1일에는 신원식 정무부지사가 국회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지역 국회의원, 예결위원들을 대상으로 국가예산 확보 활동 예정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오는 27일 국회 상임위원장 방문을 시작으로, 국회 예결위원 기재부 예산실장 등 기재부 핵심인사, 당 지도부 등을 순차적으로 방문하는 등 힘 없이 국가예산 확보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도 계속된 코로나19 위기로 대면 활동 제약 등 예산 확보활동에 많은 제약 요인이 있지만, 코로나 위기 이후, 다가올 사회경제구조 대전환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전북 대도약의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며 국가예산 확보에 전심 전력을 다해 주길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 "지반침하 피해 기업에 합당한 대책 세워라"

#### 김운덕 의원, 국토부·LH와 익산식품클러스터 현장 찾아

#### 김현준 LH사장으로부터 "조치 취할 것" 답변 받아내

지난 7일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익산식품클러스터'에 심각한 지반침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산단을 조성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의 현장방문을 요구한 김운덕 의원의 주장에 따라, 국토부 관계자를 비롯한 LH 고위 관계자들이 전격적으로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청취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운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은 19일 국토부 백원국 국토정책관, LH 김현준 사장, 김승철 LH 전북본부장 등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함께, 익산식품클러스터 공단의 지반침하 발생 현장을 찾아 피해입주기업대표들의 피해사태를 듣고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입주기업 협의회 안진영 회장과 피해대책위 최진원 위원장은 "지난 2017년부터 음료 제조업 등이 입주해 있는 국가 식품클러스터 14블록 약 6만 2000여㎡(약 1만 8755평, 인접 근린공원 포함)에 심각한 지반 침하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 김운덕 의원은 19일 국토부 백원국 국토정책관, LH 김현준 사장, 김승철 LH 전북본부장 등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함께, 익산식품클러스터 공단의 지반침하 발생 현장을 찾아 피해입주기업대표들의 피해사태를 듣고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피해 기업 대다수가 LH가 토지계약 전, 땅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분양받은 땅에 대해 조사하려면 대금을 모두 기업이 납부해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A 업체 대표의 경우, 공사 착공 당시 연약지반에 따라 공장의 설계까지 변경해 손해를 입었고, C 업체 대표의 경우 공장을 짓는 곳이 연약지반이라고 설명해 줬다면, 산단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이다"는 고충을 전달했다.

설명을 들은 김운덕 의원은 "국가 식품클러스터는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조성한 산업단지인 만큼, 위험도 조사를 해서 지질에 대한 안전을 확보해 줘야 하고, 무엇보다 LH공사에서 산단 조성을 했다면, 마땅히 피해 기업들에 합당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현준 LH 사장은 "김운덕 의원이 지적한 대로 사장이 직접 나서 기업들에게 직접 관련 문제를 행하겠다"면서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즉시 협의해 피해기업은 물론, 다른 부분까지도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손 잡고 하나로' ... 장애인체전 개막

#### 25일까지... '안전체전' 목표 전북, 25개 종목 490명 참가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손을 잡고 하나로! 희망품고 미래로!'라는 슬로건 아래 19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경북 구미시를 주 개최지로 전국 9,1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다.

전북 선수단은 송하진 회장을 단장으로 25개 종목에 400명(선수 314명, 임원 및 관계자 178명)의 선수단이 이번 대회에 참가한다.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지난해 코로

나19 확산으로 취소됐지만 올하는 전국 선수단의 참가규모를 최소화 하고 개·폐회식 등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있는 행사 취소 등 방역 관련 안전 매뉴얼을 준수한 가운데 철저한 준비를 했다. 특히 지난 해 대회 개최 취소로 선수들의 사기저하, 의욕감퇴를 우려해 그동안 노후화 된 장비를 새롭게 보강하고 연중 지속적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확대했다.

전북도는 대회 종합 11위를 목표로, 어렵게 개최된 대회에서 모든 선수가 그동안 쌓아 온 본인들의 기량을 충분히 발휘해 여운이 남지 않는 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경일 사무처장은 "이번 대회에서는 성적도 중요하지만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모범적인 선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방역담당관을 배치해 현장에서 이상반응 발생시 즉시 대응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를 갖추고 일과 중·후에 사적모임이 진행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등 안전체전을 치루고 돌아오는 것을 최대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 본사 인사

▲이 득훈  
임 : 기자  
명 : 지방부 익산주재

(10월 20일자)

아름다운 장수의 가을풍경이 여러분의 추억 여행행로를 책임집니다!

장수군 JANGSU COUNTY

장수만세

NAVER 장수군청 검색